

[별지 제3호 서식]

정 건 서

후보자 성명	이 준 섭
정건서	
1. 출마의 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, 저는 제28대 보험계리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준섭입니다. 최근 보험산업은 국제회계기준의 본격 시행, 인공지능 확산과 같은 변화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계리사의 전문성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. 저는 이 변화의 시대에 계리사회의 미래를 열고,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. 현재 계리사회는 정회원 2,157명을 포함해 총 4,336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. 이제는 회원 개개인의 권익 보호와 위상 강화를 통해 계리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. 저는 ‘조금 느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지향하고,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, 회원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계리사회’를 만들고자 합니다. 더 이상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.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·추진하여, AI 시대라는 큰 변곡점 속에서 계리사회의 역할과 가치를 한층 높이겠습니다. 저, 이준섭은 오직 계리사회의 미래와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.	

2. 비전

“일하는 계리사회, 같이 참여하고 싶은 계리사회”

3. 주요 공약

3-1. 회원 전문성 강화

○ 전문인력 상근 배치

- 기존 상임이사를 사무국 상주 인력으로 전환하여 실무연구, 교육 및 대내외 전문업무를 총괄
- 사무국장은 회원 관리, 행사 등 행정업무 중심으로 역할 조정

○ 실무교육 다양화

- 주니어 계리사: 현금흐름 솔루션, 상품 PV 산출, 통계패키지 활용 등 솔루션 역량 강화 (장기적으로 자격제도 검토)
- 시니어 계리사: 소통능력(언어, PT, 보고)등 리더십 교육 제공

○ 국내 계리이슈 분석 강화

- 업계 공통 현안 대응은 물론, 계리사 고유의 이슈를 발굴·연구
- 자체 연구진을 확보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점진적으로 개선

3-2. 회원 권익 보호 및 커뮤니티 강화

○ 총회 운영 개선

- 친목행사와 분리
- 총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
- 중요 사안은 전 회원 온라인 투표제 도입

분야별·계층별 소통 강화

- 분야: 상품·위험률, 결산, 리스크(보험·자산), 선임계리

- 계층: 임원, 부서장, 중간관리자, 실무자
- 금융당국 및 정책담당자와 현안 논의의 장 마련

3-3. 사회적 책임 및 대외 위상 제고

- 조직 내 계리사 위상 강화
 - 분야별 전문 커리큘럼을 통한 전문성 제고
- 계리업무의 건전한 발전 도모
 - 계리업무의 고부가가치화 추진
 -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시 표준검증시간의 현실화 검토
 - 계리법인 발전방안 마련

4. 업무 추진 계획

4-1. 추진 방향

- 임기 초기에 실무교육 커리큘럼을 검토하여 시행
- 연구는 시급성이 큰 분과위원회부터 시작, IT 솔루션 분야를 추가
- 총회 중계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, 온라인 투표는 홈페이지 개편 시 도입
- 분야별·계층별 정기모임을 연 2회 운영하며, 사무국에서 관리·지원
- 계리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슈별 이해관계를 선제적으로 조율, 컨설팅 단가 기준 마련을 검토

4-2. 예산 계획

- 총회 친목행사 분리로 예산 절감

- 상임이사의 상근채용으로 인한 비용은 강사비 일부를 활용
- 소셜미디어 중계는 사무국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며,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일부 활용가능
- 정기모임은 총회 친목비 전환을 활용하여 추가 부담 최소화할 것이고 위상 제고 및 이해관계 조율 비용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집행

5. 맺음말

존경하는 회원 여러분,

저는 회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.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확립하고,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계리사의 전문성을 확장하겠습니다.

회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, 일할 맛 나는 계리사회, 그리고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계리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“일하는 계리사회, 같이 참여하고 싶은 계리사회”

도전의 시대는 곧 기회의 시대입니다.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리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.

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이준섭 드림